

주안예 News InChrist

주.안.예.교.회.뉴.스.레.터.



03
Mar. 2018
Vol.6 No.3

- 주안에라이프 개강
- 사순절/부활절 묵상
- 교우 동정
- 목장/ 사역국 소개

주안예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겸손·온유·인내로 하나되자”



"주안예교회로 오세요" 3월 18일 몬트레이파크 채플 입당감사예배를 드린 후 새 성전 앞에 모여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 <사진: 양영 기자>

■ MP채플 입당감사예배

지난 3월 18일(주일) 오후 3시 30분, MP 채플에서는 입당감사예배가 드리졌습니다. 다운니에서 2013년 5월 26일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린 후, 네 번의 이사를 하고 지난해 12월 31일 MP채플로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입당 감사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입당감사예배는 그 동안 몇 군데 지역을 돌아 4번의 이사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지역에 채플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 도중에는 지난 4년반동안 수고하고 애쓰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가 상영되었는데 그 때를 생각하며 이 좋은 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몇몇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습니다. <6면에 계속> | 이광영 기자 |



■ 사순절을 보내며...

내가 좋아하는 것 절제 하나님과 약속

사순절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주일학교 유치부때 선생님의 말씀이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한 가지씩 말하라고 하셨다. 어떤 아이는 연필, 어떤 아이는 필통, 어떤 아이는 엄마를 좋아하고, 또 동생과 새 옷, 새 신발을 말한 아이도 있었다. 그때 나는 할머니가 만들어놓고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내어 주시던 조청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모두 말하자 사순절에 대해 말씀하시며 한 가지씩,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자고 하신 것이다. 사순절의 의미도 몰랐지만 나는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조청을 먹지 않기로 예수님과 약속을 하였다. 할머니가 조청을 주셨지만 예수님과 약속을 지키려 꼭 참고 먹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신 할머니와 어머니가 왜 좋아하는 조청을 안 먹느냐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과 약속을 했다고 말씀드리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그리고 부활절 날 예수님과 약속을 잘 지켰다고 교회에서는 문화연필을, 어머니는 나비가 달린 머리핀을 선물로 주셨다. 그때부터 사순절이 되면 나는 한 가지씩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기로 예수님과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조근희 권사

어릴 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자제하고, 좋아하는 옷 안 입기, TV 안 보기를 약속한 적도 있다. 조금 커서는 손톱 안 바르기, 립스틱 안 바르기, 성경 읽기, 기도하기도 약속하였다. 결혼을 하고부터는 주로 많이 한 것이 금식이다. 외식을 절제하고, 새벽 제단 쌓기, 성경쓰기 등도 사순절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목록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좋아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예수님과 약속하고 지키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자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린 우리를 살리시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 같은 용서 받지 못할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 언덕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를 절제하고 평소엔 어려워하지 못하던 한 가지를 올려드리는 것은 사순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사순절의 약속,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한다.

■ 리더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른 신앙과 삶의 조화를

항존직과 각 사역국, 국,팀장, 목자장들과 목자 그리고 작은 목자들의 기도참여를 돕는 특별 새벽예배가 각 채플별로 주간씩 실시되었다. 밸리채플은 3월 12일 부터 17일까지였으며, MP 채플은 3월 19일 부터 24일까지였는데 많은 리더들이 참여하셔서, 개인과 교회와 지역 사회 그리고 조국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땅 미국을 위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 최혁 담임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볼 때 참된 만족과 평안이 반드시 있음을 강조 하셨다. | 오희경 기자 |

■ 부활절을 맞으며...

1년 365일 매일이 부활절 되는 믿음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어떤 이는 사랑을, 또 다른 이는 십자가를 말한다. 그리고 용서와 평화, 희생, 구원, 보혈을 말하는 이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무엇보다도 ‘부활’을 이야기한다. 물론 이 모든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로 떼어서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심장이다. 아니, 내 신앙의 산소이자 생명이다. 나는 ‘부활절’이란 말과 절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1년 365일, 매일 매시간, 항상 내가 호흡해야 하는 산소와 같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신앙에서 부활이 단 한 시간이라도 없어진다면 나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활을 일 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날 하루로 제한되는 것처럼 생각된다.



송상화 장로

세상의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가 참 자랑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모든 종교는 신은 인간과는 다른 세상에 있고 신과 인간은 구별되며, 신은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그 신을 섬겨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아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물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여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하시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살리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흠 없는 보혈을 다 쏟아주시고 죽으셨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니, 시작이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무덤에 누이셨지만 사흘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은 승리의 부활이다. 죽음만 이기신 것이 아니다. 죄와 배신, 미움과 시기, 욕심, 기아, 질병, 낙심과 불평 등등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고 증거이다. 나는 이 부활을 신앙하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려고 노력한다.

사탄은 세상의 부와 명예로 평생동안 나를 유혹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은퇴하고 인생의 후반기에 주안교회에 와서 최혁 목사님을 만난 것이다.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기독교 강단까지 점령한 말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매주 설교하시는 최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제 남은 여생, 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에게 약속한다.



■ 주안에라이프 개강

배움과 섬김 통해 활기 넘치는 ‘실버 라이프’

주안예교회에서 지역사회 의 돌봄 차원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주안에라이프”(IC Life Senior Academy) 프로그램이 지난 2월 28일 2018년도 봄학기를 개강했다.

힘들었던 이민생활을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이, 은퇴하신후에도 삶의 리듬을 잃지 않으시도록 짜여진 클래스에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영어와 성경교실, 바둑과 편물, 배드민턴과 탁구, 스트레칭과 건강댄스, 키보드와 첼로 그리고 기타와 오토하프, 하모니카 등 각종 악기는 물론이고 노래교실, 미술교실등의 다양한 과목이 준비되어있다.

김경배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15분계서 강사로 섬겨주고 계시며, 그중에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한때는 그 필드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던 분들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고급 음식점 못지않은 맛



깔난 음식으로 유명한 주방팀에서는, 김현숙 팀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의 장급이들이 위생적이며 건강에 좋은 재료를 선별하여 최고의 식사를 대접하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봄학기는 5월 30 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수요일 마다 진행이 되며, 지금까지 80분 이상이 등록을 마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수

요일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한다.

벌써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주안에라이프”가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바라며, 여기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이 육체적인 만족함과 아울러서 영적으로도 충만한 여생을 보내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오희경 기자 |

■ 한어청년부 주안에만남

따뜻한 미소, 복된 만남 12명의 새가족 잔치

Aloha! 2월 25일 주일 오후, 하와이 테마로 예쁘게 꾸며진 한어청년부실에서 새로운 청년들을 환영하는 주안에만남이 진행되었습니다. MP채플로 이사 와서 처음 마련된 주안에만남의 자리에 총 12명의 새가족들과 코람데오 새가족팀, 간사팀이 함께 모여 약 20여명 정도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청년들은 틈틈히 모여 회의하고 초대장과 데코레이션,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고, 특별히 영커플에서 디저트와 간식 등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하와이 테마로 기획된만큼 복장부터 식사메뉴까지 모두 하와이언 스타일로 준비되어 마치 정말 휴양지에 온 것 같은 편안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덕에 새가족들이 부담없이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신정원 자매와 윤솔 자매의 진행으로 다양한 게임들을 하며 어색함을 털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새가족팀 소개와 간사님들의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 순서로는 평신도사역훈련원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영 간사가 나와 청년들에게 주안예교회의 알찬 양육훈련들을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안에



만남에 참석한 새가족들의 절반 이상이 주안예말씀에 참여하고 있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남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안에만남의 하이라이트인 담임목사님과 의 만남이 마지막 순서로 준비되었고 새가족들의 자기소개(좋아하는 음식, 가족사항, 사는 곳, 등)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이 주안예교회에 오게된 경위가 친구나 지인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담임목사님의 설교CD나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온 청년들이 많아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다가 주안예교회에 와서 말씀에 은혜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삶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청년들도 있었으며, 새가족으로 와서 이미 새가족팀이나 찬양팀에서 섬기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청년들을 주안예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게 하심에 감사드렸으며, 앞으로 코람데오 한어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청년부 새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박경숙 권사 (MP) 꿈 많던 학창시절 어느 늦은 밤, 촛불 앞에서 시를 쓰다 깜박 잠이 들었던 박경숙 소녀.. 머리맡의 환한

불빛에 놀라 깨어보니 촛불이 넘어지면서 머리카락에 불이 붙어 아찔싸~ ㅎㅎ그렇게까지 시와 글쓰기를 좋아했던 제가 문서국의 기자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선전적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조성운 집사 (MP) 바쁜 시간중에 잠시 가져본 일탈은 더욱 달콤하지 않을까? 달콤한 일탈의 주인공은 조성운 집사님 이시다. 성

가대의 총무로, 그리고 문서국의 기자로, 섬김에 앞장서 서시는 조성운 집사님께서 모든걸 잠시 멈추시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셨다. 사랑하는 따님가족들과 행복한 여행길에 오르신 집사님! 2 주후에 다시 뵈올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송태일 집사 (MP) 야구부의 총무입니다. 얼마 전부터 남가주 야구시합의 정규리그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모

여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가 교회리그에서는 우승을 하는 영예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올해 목표는 우승컵을 지키고, 정규리그에서는 10승을 하는 것입니다.



안건우, 정지혜 성도(MP) 안건우, 정지혜 성도 가정에 득남의 기쁜 소식으로 많은 분들의 축하인사가 쏟아졌다. 3월 4일 “Joel”이라는 씩씩해 보이면서도 귀여운 남자 아이의 탄생으로 드디어 가족이 한사람 더 늘어난 것이다. Joel(안하준) 이가 태명(기쁨)처럼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기쁨만을 안겨주는 귀한 아들로 성장해 가기를 두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조운, 김연주 집사(MP) 조 브라이언 집사님과 김연주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아들 조운이 어느새 부모님과 첫 인사를 나누는 1년이 되었다. 3월 24일 토요일 파사디나의 어느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돌잔치가 있었다.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며 자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고궁일 목사, 이재은 사모 지난해 12월부터 벨리채플에서 사역을 시작하느라 샌디에고에 있는 사모님과 3자녀와 떨어져 기러기 가족이 되었던 고궁일 목사님이 드디어 교회와 가까운 노스리지로 이사했다. “가장 좋은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는 명언과 함께 새 곳으로 왔지만 원래부터 살던 집 같이 느껴진다고...



이예스더 권사(MP) 40일 동안 아프리카 3개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을 이유로 많은 사람이 만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나누어준 것보다 그들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큼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선교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황성남 성도, 김윤영 간사 작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미루어왔던 하니문을 늦은만큼, 더욱 달콤하게 다녀왔다. 안가면 평생 후회할거라는 주위분들의 성화에 떠밀리다시피 출발을 했는데 막상 떠나고보니, 평생 아름답게 간직할 예쁜 추억이 너무 많이 쌓여서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후문이다.



구조셉, 빛나리 성도(MP) 구조셉, 구빛나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딸, 예쁜 하선이가 첫번째의 생일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분들을 모시고 감사의 자리를 가졌다. 설교말씀과 하선이를 향한 축복의 찬양시간이 있었고, 하선이의 성장영상을 보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엄마처럼 예쁘게, 아빠처럼 똑똑하게 자라날 하선이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 미니 간증



이용화 권사(벨리) 오랜 날 동안 잘못도 많았고 슬픈 날도 많았지만 이제 80을 바라보면서, 구

원받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왔음을 그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날들이 있었어도 항상 담대하게 은혜가운데에서, 모든것을 나누며 살아왔고, 또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았음은 주께서 붙들어주심 이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욱 건강함을 누리며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주위에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야할 시간들도 말씀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저의 입술이 복 되게 해주시며 저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드립니다.

■ 한어청년부 주안에만남 소감

주안에만남을 한다 들었을 때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답인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정도만 들었기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시간만 보낼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교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들과 목표들을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도들이 가져야할 모습과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세하게 단계별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을 단련시키려는 교회와 자신의 신앙에 맞는 수업들을 필요에 따라 수강할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거라 생각하니 기쁩습니다.

목사님과의 대화시간은 한사람 한사람을 알아가려고 하시는 목사님의 노력이 보기에 좋았고, 서로 유대감을 형성해가



는 모습을 보며 이런 시간들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 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만남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서로 알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이 이 교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주안에 만남을 통해 남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되어 기쁩니다. | 마진희 성도 |



윤종화 장로(MP) 얼마 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협력할 현지 목사님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직업 훈련원을 세워 복음과 함께 직업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기로 하였습니다. 왕복 20시간 가까이 오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하신 교우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전 한국에 계신 큰 자형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갑자기 출국 하셨습니다. 평소애 돈독한 우애를 다져오시던 사이였기에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지만, 우리가 드릴 수 없는 큰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부활절 예배를 위해...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어청년부와 EM, ICY 중고등부 아이들이 스킷과 바다위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달여간 연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상하였고,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 MP채플 2목장

나눔도 친교도 젊고 활기차게

MP채플 2목장은 주안예교회에서 가장 젊은 목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민 교회의 특성상 한국말을 하는 젊은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대이면 중년이지만 교회에서는 젊은이들로 간주됩니다. 이 젊고 활기 넘치는 2목장을 섬기는 목자는 찰스 최, 애슐리 최 집사 부부입니다.

목장 체제가 갖추어지고 처음 갖는 가정 예배는 최 집사님 집에서 주일날 하였습니다. 주일 점심식사를 교회에서 먹고 할까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그래도 목원들을 직접 대접하고 싶은 생각에 부부의 의견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메뉴가 햄버거였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재료를 사고 토요일 하루 온종일 패티를 만들고 샐러드도 준비하고 또 2월 생일을 맞는 목원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케익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직행하여 뒷마당에서 햄버거를 굽고 샐러드도 만들고, 이것저것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베풀어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두 부부의 합창입니다. 아!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간단하게 준비한다더니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요. 냄새만 좋은 것이 아니라 햄버거가 너무 맛있습니다. 참! 오늘은 2월 생일을 맞은



오 경순, 김지희 집사님을 축하해야지요. 생일 케익을 가운데 놓고 목원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도 하였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비주류인 하갈도 찾아가서 인도해주신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찾아와 주시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소망하며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어디라도 찾아 주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 무책임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시고 깊은 산 속에도 계시며, 의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도 주시고 음식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신앙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신앙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도 확실하고 분명해집니다.

오늘은 첫 가정 예배라 목자장이신 윤종화 장로님 내외분께서 함께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안에 교회의 기둥이고 미래입니다. 주안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다보니 시간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7시가 되어서야 모임이 끝났습니다. | 조성운 기자 |

■ 벨리채플 1목장

뜨거운 간증으로 사랑과 위로를

공태용 집사와 공수옥 권사가 이끌고 있는 제1목장은 정도영 장로와 정혜옥 권사를 목자장으로 17목원의 목장가족으로 구성되어 매주 목장모임을 갖으며 말씀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

제1목장에는 항상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이 특별한 공태용 집사, 공수옥 권사, 작은 목자 오한복 집사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모든 목원들이 말씀 안에서의 신앙간증과 삶의 이야기 나눔이 자유롭다. 또한 목장체제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일상에 접목시킨 자유로운 간증을 통해 나누는 은혜는 바로 기도제목으로 이어져 주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주고 받는다. 지금의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목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공태용 목자의 간증은 항상 뜨겁고 절절해 목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기대하게 한다.



대부분의 목원들이 교육국, 예배국, 봉사국, 의료국, 성가대 등 모든 사역국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1목장은 항상 스케줄이 가득하나 무엇보다도 목원들의 우선순위는 목장으로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에서 은혜를 경험한다.

현재 제1목장에는 클라라 집사님, 김한복 집사님, 김상숙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제목이 있다. 이 기도제목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목장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 박창신 기자 |

■ 밸리채플 토요 목자모임



“말씀 나눔 후 성도들의 모습이 밝아졌습니다”

“한 분이 자기 삶을 간증하다 눈물을 흘리자 듣던 분들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며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목원들이 주일에 배 목사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위해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야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어서 모임에 참여하기 어렵다면서도 목자를 배려하는 마음에 잠깐이라도 앉아 있다 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누는 목장모임이 시작 된지 한달 반, 이 모임의 중심에 있는 목자와 작은 목자들이 매주 토요일 아침 한자리에 모인다. 목자들끼리 먼저 나눔의 시간을 갖기도하고, 나눔을 인도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대처 방

법을 조언하기도 한다.

지난 17일 밸리채플 101실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목장모임을 시작하고 나서 한달 반 동안 좋아던 점, 목원들의 변화, 받은 은혜에 대해 진솔하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나눈 대화를 요약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눔에 대해 꺼려하시고 마음이 편치 못했던 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적극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말고 있는 목장이 연로하신 드림교구 어르신들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힘써 참석하시고 모이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것을 보며 잘 섬기려고 합니다” “처음엔 인도하는 저부터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어색했는데 지금은 모두 활발하게 삶을 나눕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바빠서 참석 못한 목원이 있어 나눴던 내용을 주중에 보내 드렸더니 다음부터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목자와 목원들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했습니다” “목장모임을 통해 목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눔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위로합니다. 특별히 모임 후 목자와 작은 목자들이 남아서 기도합니다. 매주 못 오신 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한분은 간증하시기를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주안예교회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역사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다.

| 조용대 기자 |

교우비즈니스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 - 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잉 서비스

L.A. 여행사
TINA CHANG

711 S. Vermont Ave., #110
Los Angeles, CA 90005

Tel : 213.381.2020
FAX : 213.381.2022
mireetina@gmail.com

■ 교역자 칼럼

순종과 기적

하나님은 모세가 없어도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으신데 왜 굳이 모세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놔두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 그 순간 무모해 보이는 행동의 결정- 홍해를 지팡이로 내치는 행동이야 말로 사람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납득할 만한 방법과 결정은 아닌 듯 했다. 그러나 모세의 순종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 만이 결정할 수 있는 행동임을 우리 모두 알 수 있으나 과연 그 순간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갈라 졌던 홍해가 언제 다시 덮칠 지 모르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건너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그 순간 내가 거기 있었다면 나는 어떤 감정과 행동으로 홍해를 건넌을까?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 대로 하나님께 답안지를 드렸을까?

아무리 모세가 순종을 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길을 외면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열어준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기를 원해도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치지 않았다면 홍해의 기적은 안타까움만을 남겼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몬트레이 파크 채플(이하 MP채플) 로의 여정의 시작을 뒤돌아 보면서 오피 채플로 이전 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 비현실적인지를 괴롭히는 생각이 정당함을 내뱉는 말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홍해 앞과 같은 현실가운데서 이미 계획하시고,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기도와 함께 담임목사님의 순종의 시작으로 당회장로님들, 그리고 확신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을 뒤로하고 함께 발걸음을 내딛은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이 모여져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주안예교회를 향한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는 기적의 현장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신 것을 보며 홍해의 기적을 떠올려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꿈을 함께 꾸며,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를 주안예교회 MP채플 이전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순종의 자리와 시간에 나를 끼워 주셔서 이 기적의 기쁨을 공유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큰소리로 부르짖어 봅니다. 하나니~임!!! 감사합니다" 라고.

| 오승현 전도사 |

■ 숨은 일꾼/ 박상욱 집사(MP)

곳은 일 도맡아 하고도 칭찬엔 손사래

건물시설 관리국은 MP채플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MP채플의 큰 건물을 모두 관리하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편으로는 가장 작은 기관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소속 인원은 박상욱 집사 한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박상욱 집사님은 숨은 일꾼의 한 사람이다. 박상욱 집사님처럼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반면에 그를 아는 사람 또한 그리 많지 않다. 그만큼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간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모르면 배우고, 필요하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일을 맡없이 소화해낸다. 지금까지 박집사님은 미디어국에서 음향 시설을 담당해 왔다. 주안예교회에 오기 전까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지만, 하나씩 배우면서 시작한 것이 몇 년 동안 봉사하게 되었고 지금은 음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교회가 MP채플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팔을 걷어 부치고 뛰어들었다. 전기 공사, 음향 시설, 페인트, 부역 공사, 플러밍, 화장실, 에어컨 등등 거의 모든 공사에 박집사님은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힘을 보탰다. 밤을 새우기도 여러 번, 교회 간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며 교회 공사에 참여했지만 수고했다는 칭찬에는 손을 내 져는 않는다. "수고라니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공을 함께 수고하신 교우들에게 돌리기 바쁘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컨트랙터도 아니고 아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돕고, 그분들의 심부름을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돕고 심부름하면서 많이 배웠습



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게 건물시설 관리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박집사님을 보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장로님도 있다. "박집사님은 한결같아요. 항상 그 자리에, 필요한 곳에 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박집사님은 처음에 건물시설 관리국장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 너무 놀랐다. 교회에 쟁쟁한 컨트랙터들도 많은데, 이 큰 건물의 시설과 관리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중책을 맡기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당하기로 하였다.

함께 일할 대원들을 구하라는 질문에는 모든 교우들이 대원이란다. 모든 교우들이 자신보다 더 교회의 시설을 잘 관리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은 별로 많지 않다고 겸손해한다. 그래도 바램은 정식으로 건물시설 관리국 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그때그때 고장이 나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설치하는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로그북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합니다. 에어컨, 전기, 화장실, 부역 시설, 플러밍 등등 관리해야 할 것이 태산처럼 많습니니다. 많은 분이 동참해서 팀을 만들어 주님이 주신 교회 건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하기를 바랍니다." | 조성운 기자 |



■ 새가족 소개(밸리)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에 한대 맞아요"

작년에 여동생이 동네 아시는 분이 건네 주는 담임목사님의 설교 CD를 듣고 목사님 말씀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라며 한번 가보자고 하여 11월초 동생부부와 함께 주안예교회 Valley Chapel을 방문하였습니다.

항상 다니던 내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교회 입구에서 환한 웃음을 띄며 성도들을 반기는 권사님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진심어린 마음과 몸짓으로 반겨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불같이 뿜어내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소홀히 흘러들 수 없었습니다.

첫째주인지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전부터 알던 권사님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 "오늘 목사님 말씀에 한대 맞고 갑니다" 라고 툭 던진 한마디가 요즘 매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의 독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전리품'은 무엇인가? 나는 영적 전리품이 있거나 한가? 나에게는 분노, 교만, 시기, 질투, 더러움 뿐인데... 26년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머리에만 쌓아왔을뿐 저의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두껍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하지만 합니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은 '나의 삶의 발자국에 예수의 이름을 남긴다' 라는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지? 저는 주일 찬양시간에 아직도 가슴으로 따라 부르지 못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등등.

두달 남짓 예배 출석 후 저희 부부는 2018년부터 주안예교회 새 식구가 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1월 첫째주에 예배 때마다 항상 성전 앞을 성실히 지키시는 여전도

사님의 인도로 등록을 마치고, 오랜 친구처럼 격의 없이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새가족국 국장님 부부와 직원들의 차고 넘치는 사랑과 세심한 배려로 자칫하면 낮설어 갈 수 있는 시기를 잘 지나고 지금은 8목장에 속하여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하신 목사님 장로님 부분의 인도로 모이는 우리 목장 모임은 참으로 귀한 모임입니다. 항상 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저 자신을 잘 알기에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성화되어가려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 도전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며 나의 삶을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나누려고 애씁니다.



최일 집사(밸리)

"왜 하필이면 그 교회야?" "다른 교회는 몰라도 그 교회는 아니야!" 만나는 주위 분들이 점점게 저희 부부에게 질책의 말을 던질 때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려는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지금 따라 부르지 못하는 찬양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찬양할 때가 오기를 기도하며 또한 저희 부부의 작은 소망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어 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안예교회 모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1면에 이어> 송상화 장로님의 기도에 이어 여성중창팀(박성원, 정경화, 스티븐슨, 장성은)이 "참 좋으신 주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마하나임 성가대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찬양드릴 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따라 부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몬터레이 지역은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이고 한인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주안예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예배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감사예배에 참석하신 400여

성도님들과 외부에서 초대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또한 밸리채플 권사회에서는 귀한 음식을 마련해 오셔서 MP채플 권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풍성하고 귀한 저녁식사를 정성껏 대접하였습니다.

최혁 담임목사님은 "하나님의 재료" (엡4:1~3)라는 제목을 가지고 겸손, 온유, 인내의 재료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성숙한 주안에 공동체가 되시기를 권면하였습니다.

■ 교사일지

하나님 사랑, 섬김의 자세

주안예교회로 온지 어느덧 1년 9개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나의 실체를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크리스티나 집사 (MP)

EM ICY교육부를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감사함에 앞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택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성한 2딸을 둔 엄마이고, 교육열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딸들에게 하지 못했고 주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속에서 키우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기들, 유치원생들, 중 고등부 학생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많이 부러웠고 내게 다시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싶다고 고백했을 때 교육부를 섬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기를 몇달, 기도하면서 식지 않는 나의 마음을 깨닫고 섬기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하며 교육부 학생들을 나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겠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온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겸손한 자세와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해봅니다.

■ MP채플 입당감사예배

이제 MP채플은 이 지역 사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칭찬 받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 칼럼/ 아프리카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여정이었음을...

선교가 무엇일까? 이번에 나는 그 동안 내가 선교란 이름으로 해 왔던 많은 시간과 경험들을 들춰 보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내가 20여 년 몸을 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수 차례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었던 3박 4일의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일하고 오는 것이었다.

교회 안에서는 일년에 한번은 단기 선교에 목적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면, 일등 신자라고 인정해 주는 무언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선교 단체의 주관으로 내가 다니던 교회가 협력하여 인도 미전도 종족 선교를 가게 되었다. 어떤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 현지인들의 생활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 보지 못한 미전도종족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미전도종족으로 간주해서 복음 전하는 10여 일의 여정을 가진 적이 있었다. 한두의 영향으로 수 많은 신들을 가진 그 민족은 신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거리로 나가고, 마을로 나가 모여 드는 사람들에게 풍선을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하고 떠났다.

제일 먼저 우리 일행을 찾아 온 사람은 미친 딸을 끌고 온 엄마였다. 여자는 여자에게만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야 하는 내가 되었고, 나를 성령님께서 통로로 쓰시는 경험을 하면서 감사했다. 약한 영에 놀린 사람들이 유독 많이 우리를 쫓았다. 기도하면 약한 영이 떠나는 것을 그들은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그 수억의 귀신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했던 여행이었다.

혼자 준비하며 특히 벌레에 약한 내가 말라리아를 두려워하여 의사를 찾아 가고, 약을 준비하면서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유독 나만 벌레에 물려서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내가 그 모기의 천지인 아프리카를 가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모기였다.

미국에서도 열 번째 안에 드는 가장 살기 좋다는 환경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살아온 내가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



람들을 찾아 간다는 것이 스스로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비행기를 타고 시차를 포함해서 이들을 잃어버리는 긴 항공 여행. 혼자서 미지의 땅을 찾는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다. 공항을 바뀌며, 비행기를 바꾸며 혼자 찾아가는 미지의 세계가 나를 긴장하게 했다. 그러나 40일을 채우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준비하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인도하신 길이었던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월드 미션 프린티어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 선교사님은 내 페이스북 친구다. 교제하다

선교사님의 청으로 선교사님의 인터넷 신문에 매달 한편의 칼럼을 쓰면서 더 가까워졌고 이 분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된지 3년이 되어 가나 보다. 이제 한번은 다녀와야지. 아니 아주 이주해서 살 계획을 했었는데, 내 주치의 반대와 더 지켜 봐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로 일단은 다녀 오기로 떠나기 직전에 계획을 변경해야 했다.

MP 채플 이전 때까지 침묵하다가 이전하고 나서 다녀 오겠다고 말을 꺼내고 나는 갈 준비를 했다. 마침 내가 소속 되어 있는 회사에서 선교회에서 하고 있는 동물 나누어 주기에 동료들과 사장님이 삼천 불을 모아 주셨고, 내 앞으로 천불을 따로 준비해 주신 그 마음을 크리스마스 파티 때 받고 얼마나 감사 했는지... 이 이민 사회, 그것도 소문이 안좋은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선뜻 손을 내미시는 사장님의 마음은 나에게 너무 큰 감동으로 왔다. 그동안 미국 회사에서 일하던 나는 한국인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처음 받으며 감사하고 감사했다. 크리스마스 때는 이년만 다녀 오겠다고 했었는데 검진과 의사의 소견을 받고 난 뒤 예정이 바뀐 것이었다. 가서 오지 않을, 함께 일했던 에이전트에게 사천 불을 아무 떠벌림 없이 건네주는 사장님의 손길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여정이라는 감동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 안에는 불신자 에이전트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았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었지. 30불에 염소 한 마리를 사주면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데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전해 달라는 동료들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받고 나는 그대로 선교회에 전해 드렸다. | 이예스더 기자 |

교우비즈니스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나형철 Cell: 213.999.2967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SEONG UN JOE

VIJ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 텃밭 가꾸기

사철재배 상추... 풋고추 모종 심기

텃밭 가꾸기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 첫 번째인 “좋은 음식 섭취하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지난 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텃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채소를 모두 재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권장할 만한 채소 중 특히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데 빨리 상하거나 급방 시드는 채소를 텃밭에서 키우므로 늘 신선하며 건강에 좋은 식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가꾸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상추: 상추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재배도 아주 쉽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 채소로 가장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LA 일대에서는 봄부터 겨울까지 사철 재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을에 심어 겨울부터 이듬 해 봄까지 수확하는 겨울 상추는 병 벌레도 거의 안 생기고 부드러워 더욱 좋습니다. * 상추는 씨를 뿌려서 키울 수도 있고 모종을 심어도 좋으나 모종이 빨리 수확 할 수 있고 수확 기간이 길어 좋습니다. * 거름흙과 발 흙을 잘 섞은 밭에 15cm 간격으로 상추 모종의 뿌리 길이보다 좀 깊게 구멍이를 팝니다 구멍이를 다 판 후 구멍이의 반 정도까지 물을 부어줍니다. * 물이 스며든 후 모종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거꾸로 들고 모종을 잘 뽑아냅니다. * 모종의 뿌리를 잘 퍼서 구멍이에 넣고 구멍이 주변 흙을 가볍게 눌러주어 물이 고였다 스며들게 심은 모종 주위를 주변 흙보다 약간 낮게 해줍니다. 다 심은 후 심겨진 모종에 다시 물을 줍니다. * 모종 심은지 3~4주 후부터 수확할 수 있는데 포기 전체를 뽑지 말고 맨 아래 잎부터 따서 이용하면 좋습니다.

B. 풋고추: 풋고추는 씨를 심어 모종을 옮겨 심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자라는 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모종을 구입하여 심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1.5~2 간격으로 심어야 고추 포기가 커지고 많이 열립니다. 풋고추는 모종을 심은 후 2개월 후부터 수확 할 수 있고 처음 1~2달 정도는 고추 맛이 전혀 맵지 않아 풋고추로 이용하고 그 이후는 좀 맵고 빨갛게 붉어지므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모종을 컨테이너에서 빼내어 적당한 간격으로 파고 물을 미리 부어놓은 구멍이에 심습니다. 고추종류는 뿌리가 알개 뻗으므로 밑 부분 띄워 아래까지 좀 깊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 모종을 심은 후 첫 번째 꽃이 피면 웃거름을 줍니다. 심은 후 1달 반 후부터 위쪽으로 자라는 줄기 끝을 잘라 주면 포기가 커지고 고추가 많이 열립니다. * 1~2달에 한 번씩 웃거름을 주면 9월까지도 계속 열리고 그다음 해에 다시 싹이 나와 계속 열리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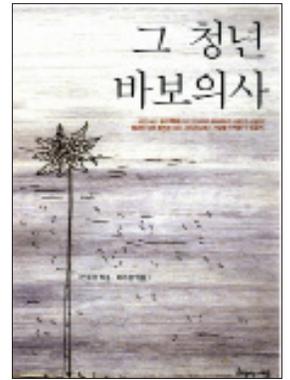


나형철 기자

■ 독후감그 청년 바보의사

내 모습 비춰주는 거울처럼...

20대 초반이었던 학창시절에 우연히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읽고서 기나긴 겨울방학동안을 집요한 상념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다. 바로 A.J. 크로닌의 “성체” 라는 책이었다. 진정한 의사의 자세와 세상과의 타협에서 얻어지는 안락함, 그리고 양심적인 고뇌...



주인공인 앤드루 맨슨이 소설 속의 인물이 아닌 실제의 인물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터무니없는 기대에 대한 좌절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었다. 하지만, 또다른 한사람은 이 책을 읽고서 의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맨슨에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토대로 소설이나 영화속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자신의 직업과 삶을 온전히 녹여내어 선블리 선택했었던 나의 좌절을 민망하게 만들어갔다.

안수현!! 처음으로 접해보는 이름이지만 웬지 낯설지 않은은 그의 한없는 친절과 해박한 지식, 클래식 음악을 향한 끝없는 도전, 상황에 맞는 단호한 고집 그리고 오직 한분만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평소애 마음으로부터 품은채 아직도 이루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그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나마 달래려 했기 때문일까? 일기형식으로 써내려간 그의 흔적(스티그마) 을 마주하면서, 그보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먼저 태어나서 그가 간 후로 10년이란 세월을 더 살아낸 나는 과연 남겨둔만한 흔적이 있기는 할까? 참회의 시간을 갖게 한다.

안수현을 어린시절부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이끌었던 에너지는 아버지 안봉순 장로님과 어머니 한효순 권사님의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시는 본을 보여주심에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나의 아이들의 어린시절을 떠올리며,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성경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지식과 재능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것에대한 후회와 미안함이 밀려옴을 막을 수가 없었다. 또한 그 많았던 섬김의 기회들을 목적이 희미한 바쁜 일들을 핑계로 미루고 외면해 왔었던 사실이 "비움 가운데 더 큰 채움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산다" 는 그의 한마디와 함께 그의 삶에 비추어 반사된 고백으로 돌아옴을 숨김없이 털어내고 싶다.

허망한 그의 죽음을 대하고는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듯한 착각 속에 허전한 마음을 쓸어 내리면서도 그의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영혼들과, 죽음 이후에 책을 통하여서 그를 알게되고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다짐을 하게되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섬리를 생각하며 눈을 감아본다.

스티그마(흔적) 가 과거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길 바란다면 욕심일까? 미래에 내가 남겨야 할 스티그마(흔적) 는 달라져야 할테니까...

그가 지적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과 "바쁘고 악한 종교인" 의 모습이 내 안에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임을 자각하며 보이지않는 안수현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볼 날을 기대한다. "No, I'm not the same!"



오혜경 기자



3월 18일 몬트레이팍 채플 입당감사예배 중에 성도들이 손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 정인섭 기자>

VALLEY / MP CHAPEL
03.26 - 03.31 mon-fri 5:20/sat 6:00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집회

PASSION WEEK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4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오윤선, 이광영, 이예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기자)

김진홍, 안동윤, 양영, 조원용,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